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⑮ 행자생활



▶한줄 요약
행자시절을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는 이유는 그 시절의 간절한 구도심 때문이었다. 갖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만한 수행이 없었고, 신심이 솟아오르던 시절이었기에 고생 또한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깨달음 위해 스스로 들어선 고난의 길

삭발과 입방을 거쳐

스님들은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행자(行者) 시절을 꼽는다. 그 무엇보다 대중과 함께 하는 초심시절의 마음공부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행자 때 지은 복으로 평생 승려노릇 한다"는 말도, 대중을 위한 하소임을 수행으로 여기며 살아온 행자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행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삭발이다.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 출가를 뜻하듯이, 삭발은 속가와 단절된 출세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징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막 바로 행자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찰 일꾼들과 함께 기거하며 일상을 함께하다가 때가 되면 삭발과 함께 행자실로 입방(入房)할 수 있었다. 본인도 사찰에서도 출가자의 삶을 살아갈 자질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 행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행자를 마치고 예비 스님이 되는 수계를 '득도식(得度式)'이라 불렀는데, '득도'란 정식으로 불문(佛門)에 든다는 뜻으로 이때 머리를 깎아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얼마간 지켜본 다음 스님이 될 자질이 있으면 삭발을 허락하여, 일찍부터 출가자로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지도록 하였다. 그 뒤 점차 삭발에 의미를 두면서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득도식이라 부르고 있다.

행자를 아예 받지 않아 출가가 쉽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1960~1970년대까지 사찰마다 행자가 많았는데, 절 살림이 힘들어 스님들도 각자 자비량(自費糧)을 내던 시절이었으니 행자를 무한정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법하다. 1960년대 금산사에서는 행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여, 어느 스님은 당시 어리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다가 울며 매달려서 간신히 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행자로 받아주지 않아 한 달간 객실에 머물며 '쫓아내면 목숨을 끊겠다'는 위협까지 하여, 산감(山監) 노릇석 달 만에 입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삭발할 때는 이를 '득도식, 삭발식, 행자 입방식' 등이라 부르며 간단한 의식을 행하는데, 선배들은 신입 행자가 머리를 깎기 전에 발심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행자가 많은 절에서는 선임과 신임의 행자실을 구분하고 위계를 분명히 하는 한편, '행자 반장'을 두기도 하였다. 해인사 행자실은 예전부터 규율이 엄하기로 이름 높아, 아래채의 하행자(下行者)는 위채 상행자(上行者)들의 눈도 바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근래 해인사에서는 절에 들어와 일주일이 지나면 '행자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삭발하는 날이면 원주 스님과 모든 행자가 동참하여, 삼귀의 · 반야심경 · 참회진언 · 사홍서원 등이 따르는 가운데 머리를 깎아주고 행자복으로 갈아입힌다. 삭발식을 마치면 선임 행자 중 막내가 삭발한 머리카락을 땅에 묻고 반야심경을 외움으로써, 후임 행자가 장애 없이 행자생활을 마쳐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다.



통도사 공양간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행자 ©하지권



마지를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행자(순천 송광사)

머리를 깎고 나면 행자들은 긴 시간 동안 고된 허드렛일을 하는 가운데 행자교육을 받으며 수행자의 길을 걸어간다. 예전에는 행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행자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에 와서 여섯 달 정도 행자생활을 한 뒤 계를 받는 이들이 나오게 되지만, 당시에도 자율적인 기간을 적용하는 사찰이 더 많았다. 따라서 계를 받을 때쯤이면 후원 일과 농사를 모두 익힌 '만능 행자'가 되게 마련이었다.

자신 삶에 대해 확신 서면
고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스스로 선택한 고난 마친자
출가수행자 길 걸을수 있어

선망의 공간인 대방

행자들에게 대방(大房)은 선망의 공간이었다. 큰스님부터 학인에 이르기까지 대방에 모여 여법하게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강원 · 선원의 대중이 경전을 읽거나 참선에 든 모습을 보면 신심이 절로 나곤 하였다. 하루빨리 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물을 긷거나 나물을 다듬으러 대방 앞을 지날 때마다 훔쳐보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발우공양 때 행자가 전체 대중과 함께하기 힘들었던 듯하다. "행자들은 공양할 때 스님들과 같이 앉지 못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다", "행자와 학인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한 자리에 편히 앉지 못할 만큼 규율이 엄했다"는 스님들의 말처럼, 아직 승려 신분이 아니기에 대방에 나란히 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원청규〉에는 공양 때 음식을 분배하는 행익(行益)을 비롯해, 생반(生飯)을 거두어가는 등의 소임을 재가자인 정인(淨人)이 맡도록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발우공양에서 스님들이 행익을 맡는 것과 달리, 출가자 스스로 음식을 더는 행위를 금한 것은 중국불교의 공양 의식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듯하다.

아울러 행익 때 따로 갈식행자(喝食行者)를 두어 큰소리로 순서를 알리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이제 흰죽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정인 또한 행자가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음식을 분배하고 알리는 일을 재가자의 역할로 구분하고, 행자 또한 신분상 재가자의 영역에 둠으로써 비구의 위상과 다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런데 실제 한국불교에서는 행자가 발우공양에 동참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수계자만 발우공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더라도, 승가의 규범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된 것이다. 이를테면 한동안 처사 신분으로 일하게 한 다음 행자로 받아들인 1970년대 선운사에서는, 정식 행자가 되기도 전에 대방에서 스님들과 함께 발우를 폈다. 이로 보아 행자 이전의 처사 신분은 마음가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고, 그들 또한 행자이자 수행자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석남사의 경우는 1957년에 인홍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행자도 함께 발우공양에 동참하고 있다. '누구도 수행하러 들어온 이는 뒤에서 속인같이 먹지 않는다'는 인홍 스님의 의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행자들이 공양간이나 뒷방에서 따로 공양하는 사찰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상의 공양을 함께하는 문화도 나란히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융통성이 가능했던 데는, 예전의 발우공양이 안거 등 특별한 기간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양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오늘날에는 행자의 신분 때문에 발우공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거의 사라졌고, 음식을 나르며 공양 뒷바라지에 집중해야 하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수계 여부를 둘러싼 담론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방의 대중으로 앉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었던 행자들은, 발우공양에 동참함으로써 출가자로서 긍지와 환희심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방에서 큰스님부터 서열대로 앉은 가운데 밥과 반찬을 나르고 공양해야 하는 불편한 시간이기도 했으니, 이는 하판에 자리한 승려들이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던 셈이다.

하소임의 용맹정진

예나 지금이나 행자의 주된 소임은 공양과 관련된 허드렛일이니, 행자 처소는 후원 근처에 배치하게 마련이다. 행자는 궂은일부터 차례대로 맡았다. 처음에는 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부목(負木),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화두(火頭), 물을 길어 오는 수두(水頭) 등의 소임이 돌아왔다.

다음 행자들이 들어오면 선임은 설거지와 상을 차리는 간상(看床) 등을 맡고, 점차 국을 끓이는 갱두(羹頭)와 반찬을 만드는 채공(菜供)을 거쳐, 밥을 짓는 공양주를 살기도 하였다. 큰 절에서는 찌개만 전담하는 '찌개 행자'를 두는가 하면, 인원이 많을 때는 선임과 후임이 짝을 이루어 상하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소임은 사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강원이 없거나 작은 절이라면 행자가 맡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원이 있는 큰 절이면 위계에 따라 허드렛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큰스님들은 바늘을 가지고 다니며 공양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찍어서 씻어 먹음으로써 몸소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쳤다. 이처럼 갓 출가한 행자시절부터 철두철미한 교육이 이루어져, 공양간에는 밥알 한 톨도 버려지지 않는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일상의 후원 소임뿐만 아니라, 논농사 · 밭농사와 산나물 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하는 소임이 행자였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일이 많고 고된 나날이라도 새벽예불에는 행자 또한 빠질 수 없었고, 예불을 마치면 후원으로 달려가 공양 준비를 했다. 그런 가운데 행자로서 익혀야 할 공부도 있으니, "요즘 학인들이 4년을 마쳐도 못 익힐 일을 그 시절에 다 했다"는 노스님들의 말이 실감 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1940~1950년대 범어사에서는 예불을 올리기 전에 행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판 · 목어 · 법고 · 범종의 사물을 치고, 도량석을 돌기도 하였다. 이는 1960년대 용주사를 비롯해 행자가 많았던 여러 사찰의 일상으로, 사찰 또한 체계를 잡아가던 시절의 모습이었던 셈이다.

노스님들은 행자시절, 아궁이 앞에서 초발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신심이 끝도 없던 때'라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리며 염불을 익히는가 하면, 서러울 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길에 빠져들면 어느새 무념무상이 찾아들곤 했다. 행자시절을 출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은 이유도 그 시절의 간절한 구도심 때문이었다. 갖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만한 수행이 없었고, 신심이 솟아오르던 시절이었기에 고생 또한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출가하여 처음 배운 〈초발심자경문〉이 행자시절의 큰 지침이 되어, 이후에도 힘들 때마다 출가의 발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자신의 삶에 확신이 서면 현재의 고난 또한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용맹정진으로 무사히 마친 자만이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에 양관 스님의 다음 글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바쁜 와중에서도 공부하고 소임에도 충실했던 행자들은 무사히 사미계를 받고 마치 연어처럼 강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피로에 지쳐 공부는 뒷전이었던 행자들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던 일도 생각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